

# 국제유가 급락... 광주·전남 기름값 떨어지나



### 미-이란 종전 협상에 국제유가 3개월 만에 최저 전쟁 이후 지역 휘발유 300원·경유 400원 '급등' 정유사 공급가격 2~3주 시차·재고 물량 등 변수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 소식에 국제유가가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광주·전남지역 기름값도 하락 국면에 들어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쟁 이후 지역 휘발유 가격은 2월 300원 이상, 경유 가격은 400원 이상 치솟았지만 최근 들어 2000원 인위에서 급등세가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이달 말부터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6일 국제유가 시장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ICE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20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4.9%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도 배럴당 80.75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4.8% 내렸다. 브렌트유와 WTI 모두 이란전쟁 개전 초 기었던 지난 3월 10일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제유가 하락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적대 행위 중단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양측은 향후 60일간 핵 문제 최종 합의와 대이란 경제 해제를 위한 세부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도 단계적으로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광주·전남 기름값은 전쟁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쟁 직전인 2월 넷째 주 2002.82원에서 5월 넷째 주 2002.82원으로 325.45원 상승했다. 전남 역시 같은 기간 1704.61원에서 2013.43원으로 308.82원 뛰었다. 경유 가격 상승폭은 더 컸다.

광주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2월 넷째 주 1582.54원에서 5월 첫째 주 1998.50원으로 415.96원 급등했다. 전남도 같은 기간 1603.58원에서 2009.52원으로 405.94원 상승하며 2000원선을 넘어섰다. 특히 전쟁 직후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광주 휘발유 가격은 2월 넷째 주 1677.37원에서 3월 둘째 주 1872.75원으로 195.38원 뛰었다. 같은 기간 경유는 1582.54원에서 1886.11원으로 303.57원 치솟았다. 전남도 휘발유가 2월 넷째 주 1704.61원에서 3월 둘째 주 1869.01원으로 164.40원 올랐고, 경유는 1603.58원에서 1889.92원으로 286.34원 상승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급등세가 진정되는 모습이다. 광주 휘발유 가격은 5월 첫째 주

2002.82원에서 6월 둘째 주 1999.35원으로 2000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경유 역시 같은 기간 1998.50원에서 1995.80원으로 보합권이다. 전남은 여전히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 휘발유 가격은 5월 첫째 주 2013.43원에서 6월 둘째 주 2015.02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경유도 2009.52원에서 2011.37원으로 큰 변동 없다. 시장에서는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지역 주유소 판매가격도 점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제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을 거쳐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정유사 공급가격, 유통비용, 주유소 재고 물량 등도 변수로 작용한다. 종전 협상이 타결됐더라도 에너지 공급망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분쟁이 종료되더라도 전쟁 전 물동량의 80%를 회복하는 데 최소 4개월이 걸리고, 완전 회복은 내년 이후에야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국제유가 안정세가 이어진다면 운송비와 물류비 부담이 완화되고 자영업자와 농어민들의 경영 부담도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다만 공급망 정상화와 환율 등 변수가 남아 있어 기름값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광융합산업 새 수장에 정창운 선출 한국광융합기술연구조합 신임 이사장·임원 선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광융합산업계가 새로운 리더십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산업 혁신에 본격 나선다. 한국광융합기술연구조합은 16일 광주 북구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에서 2026년도 제2차 이사회와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정창운(㈜윌도네스트 대표이사(사진))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총회는 기존 이사장의 소속기관 퇴임에 따른 후속 조치와 조합 운영체계 정비에 대해 마련됐다. 총회에서는 정 신임 이사장 선임과 함께 안선영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실장, 유도경(㈜그린이엔에스 대표이사, 박성진 ㈜리퍼터 대표이사)를 신규 이사로 선임했다. 신임 임원진의 임기는 오는 2029년 6월 16일까지 3년이다. 한국광융합기술연구조합은 광융합 분야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는 전문 연구협력 조직이다. 그동안 광융합산업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을 추진해 왔다. 최근 AI 기술 확산과 첨단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광융합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초거대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데이터 처리 수요 증가로 광인터커넥트, 광반도체, 실리콘포토닉스, 광센서 등이 차세대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주요국 역시 광기술 기반 반도체와 통신기술 확보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미래 전략산업 전반에서 광융합기술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광주는 국내 최대 광산업 집적지이자 광융합산업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광부품과 광통신, 광센서, 레이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삼성전자의 첨단패키징 후공정 투자와 엠코테크놀로지 생산시설 확장 등이 추진되면서 광융합산업과 반도체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 기회가 기대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신세계, 시리즈 x GTO 콜라보 '눈길' (후광주신세계가 본관 7층 '시리즈' 매장에서 일본의 애니메이션 'GTO(Great Teacher Onizuka)'와의 협업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GTO는 주인공이 교사로 부임하며 벌어지는 서사를 담은 1990년대 일본 만화로 GTO를 보고 자란 세대의 추억을 소환하며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시리즈 매장에서 GTO 오리지널 일러스트를 프린트한 반팔 티셔츠 외에도 카고 팬츠, 캡모자 등 다양한 제품을 마련했다.

## 대형마트, 가격 급등에 미국산 계란 판매 30구 기준 5900원대...한 명당 한 판 구매 가능

계란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대형마트가 미국산 계란을 판매한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오는 20일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점포에서 미국산 계란 약 3만판을 판매한다.

판매 가격은 30구 기준 5900원대로 한 명당 한 판만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가 수입한 계란을 판매하는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약 5년 만이다. 롯데슈퍼는 지난 13일부터 전국 점포에서 미국산 계란을 5900원대에 1인 2판 한

정으로 판매하고 있다. 전남 기준 전체 물량인 7천판 가운데 95%가 소진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4월 태국산과 미국산 계란을 판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불안정에 가격이 급등하자 계란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계란(특란 30구) 소매 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7441원으로, 1년 전(7033원)보다 5.8% 올랐다. 연합뉴스

## 롯데마트, 가성비 제품 '인기' 1500원 핫도그 100만개 판매

롯데마트가 간편식 수요 증가에 맞춰 선보인 가성비 델리 상품인 인기 메뉴인 핫도그 1500원 핫도그 100만개 판매를 기록했다. 롯데마트가 선보인 '핫도그'는 1개당 1500원에 판매하는 아메리칸 스타일 핫도그 상품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아메리칸 스타일 핫도그 가격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롯데마트·슈퍼는 빵, 소시지, 피클, 양파 등 핵심 원재료만을 사용해 상품을 제조했으며, 주요 재료는 즉시 조리 가능하도록 설계해 운영 효율을 높였다. 더불어 롯데마트는 핫도그 외에도 다양한 가성비 델리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 유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여름철 보양식 수요를 겨냥해 신규 출시한 '한마리 통장어 구이'를 5000원 미만의 가격에 판매한다. 또 소용량·가성비 콘셉트의 '요리하다 월드뷰페' 델리 메뉴 60여종도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18일부터 24일까지 'NEW 한통가이아드 치킨(팩)', 'NEW 함박 스테이크' 등 인기 델리 상품에 대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윤홍성 기자 yoh1404@

### 2026 광남일보 국민안전연중캠페인

# 운전할 땐 안전벨트

안전거리 · 전방주시 · 벨트착용

